서 搬出된 百濟時代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扶餘附近에서는 花崗石이 發掘되지 않을 뿐더러 牛昆里에서 본 八角石柱가 石燈竿石이라는 것과 門石 等이 百濟時代것임을 보아서도 確信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窺岩里出土 八種文樣塼의 蓮華文塼과 同一한 塼片이 王興寺址에서 發見된 것도 亦是 石材가 散逸될때에 文樣塼은 窺岩方面으로 移轉되어 어느 某家의 土壇石으로 使用하였던 것을 文樣塼出土狀況으로 알겠고 文樣塼出土地가 寺址云云의 口傳과 傳說이 全然 없고 出土地 그 場所가 田地이었던 것도 筆者가 目睹한 것이다。

그러함에서 現牛昆里에 있는 石材들이나 窺岩里文樣塼 等은 王興寺廢刹로 因하여 그 資材들이 四散의 運을 보게되었고 現王興寺址에는 廢墟地로 變化하여서 그 當時의 附山臨水하고 花木秀麗하여 四時之美를 오늘날에는 찾을 길이 없음을 嘆하여 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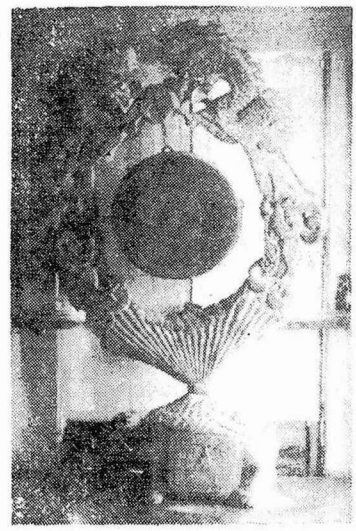
資料

金鼓龍架

洪 思 俊

우리나라 各處 寺刹에는 金鼓가 여러개 있음을 안다。 그러나 金鼓를 掛架한 寺刹은 그리 많다고 보지못하겠다。 지금 紹介하려는 金鼓架는 公州鷄龍山 甲寺 大雄殿內에 備置한 것으로 架構가 木造이며 肉刻된 雙龍이 左右側에서 如意珠를 서로 爭取하는 形態는 實物龍을 방불할 만큼 彫刻이 잘 되었음을 알겠고 架臺는 虎形을 彫刻한 것이다。 架構形을 雙龍으로 하되 色彩는 靑綠色으로 塗裝하고 架臺는 虎形에 白色胡粉을 칠하였다。

全高約二m의 靑龍木刻이 虎形臺上에 있고 그 中央에 圓形金鼓를 上과 左右 三處에서 매달았으며 서서 칠수 있는 龍架이다。 壬辰倭亂에 甲寺가 全燒된 것은 이미 아는 事實이지만 이 金鼓龍架도 甲寺新築과 同時이거나 又는 그 後의 作品으로 보겠는데 그 龍架製作의 아름다운 手法은 비록 李朝時代作이나 優秀品이라 아니할 수 없다。



虎形臺의 白色漆이 거의 脫落되고 腹部 頭部 等에만 남아 있다。 龍架에 比해서 虎臺가 적은 便이다。

끝으로 架構를 龍形으로 架臺를 虎形으로 構想한 意匠은 靑龍이 奇數에 白虎가 偶數로 陰陽思想에서 이루어진 架構라 하겠다。

考古美術 뉴ㅣㅅ

◎文財委 第一分委 第五次 會議

一九六八、二、八午後二時 文財局 局長室에서 開催、 金庠基 李弘稙 趙明基 崔淳雨 裵濬 裵吉基 秦弘燮 各委員 및 局長 係長 出席、 討議事項 다음과 같다。

一、都市計劃에 依한 德壽宮 담 一部 移築에 關한 事項

大漢門을 現位置에서 保存할 것、 展示館을 撤去할 것、 移築하는 담은 現在의 鐵柵을 없애고 사고적 담으로 할것 等을 條件으로 一六m 안으로 移置하기로 可決

二、七宮 一部 撤去

正門을 保存하고 現狀과 같은 담을 쌓고 庭園을 保存하는 條件으로 可決

三、光州市 신안동 所在 胎室 二基와 石碑 一基를 光州市立博物館으로 移置하